

재만조선인문학에서의 친일과 친일성향 연구

최삼룡(중국 연변사회과학원 문학예술연구소)

서론

세인들이 주지하다시피 중국조선족은 한 세기 반 넘어서는 세월이 있어 두 가지 일을 잘해냈다. 그 하나는 해방 전 근 반 세기동안 일제침략자와 잘 싸운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의 언어, 문자 등 문화를 잘 지켜온 것이다.

항일전쟁 중에서 중국조선족은 승리를 위하여 빛나는 공훈을 세웠으며 우리 민족의 생명력을 세계에 과시하였으며 또 그 결과로 마침내 이 땅의 주인으로 뿌리를 내리고 56 개 중화민족의 하나로 뿔뿔이 일어설수 있었던 것이다.

항일투쟁 중에서 중국조선족은 또 문학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항일문학을 창조하였는바 항일가요를 비롯한 항일문학은 오늘도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항일투사가 있었던 동시에 그 대립면에는 친일분자가 있었고 항일문학이 있었던 동시에 그 대립면에는 친일문학이 있었던 것 역시 사실이다. 이러한 대립양상이 진정한 역사의 진면모이고 인간생활의 변증법이라고 할 것이다.

여러가지 여건의 제한에 의하여 해방전 중국조선족문학 혹은 재만조선인문학에서 친일과 친일성향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이렇다 할 연구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거의 공백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중국조선족에게는 이 문제를 다룰만한 정신적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개혁개방이후 중국조선족의 문학평론이 활성화되고 한국의 연구자들이 중국조선족문학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해서부터 해방 전 중국조선족문학 혹은 재만조선인문학에 대한 전문적인 저술과 논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 친일과 친일성향에 대한 언급이 다소 되어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연구가 단편적이고 체계적이 못되며 정정당당 하지 못하다.

사실 중국에서는 항일전쟁이 승리한 뒤 오랫동안 연이어 전개된 정치운동 속에서 친일과에 대하여 철저히 숙청하였으므로 친일문학에 대한 연구에서 객관적인 장애는 없지만 또 이것이 친일문학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한 것 같다.

오늘 21 세기의 문턱을 금방 넘어선 시점에서 20 세기의 정신문화의 궤적을 제대로 더듬어보고 그려본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20 세기의 민족전통에 대하여 참답게 총화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재만조선인문학에서의 친일과 친일성향에 대한 연구는 회피할 수 없는 연구과제라고 생각한다.

1. 본론에 앞서 인식해야 할 몇 가지 문제

재만조선인문학에서의 친일과 친일성향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다음과 같은 몇 개 문제를 명확히 해명할 필요가 있다.

첫째, 친일문학이란 무엇인가?

친일문학이란 단순히 문자로 풀이한다면 일제와 가까이 했던 문학을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일제시기 일본인 혹은 일본관헌과 밀착하여 반민족적인 작용을 일으킨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물론 친일적인 문학활동, 작가, 작품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친일문학을 논하는 것이 그리 힘들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일제가 패망하여 조선과 중국에서 쫓겨간지도 반세기가 넘는 오늘까지 친일문학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이해와 학자들의 견해도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

아래에 상세한 논술이 있겠지만 해방 전 중국 만주에서 일제의 식민통치는 한국에서 식민통치는 한국에서의 식민통치와 많이 다른 특징이 있기에 여기에서 친일행위도 한국에서 친일행위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재만친일문학에 대한 연구도 반도 내 친일문학과는 다른 접근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재만조선인문학에서 친일문학과 친일성향문학 연구의 관건은 바로 “친일문학”의 개념정리라고 생각한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하여서도 많은 사람들의 의론이 있었지만 필자는 “친일문학론”의 저자 임종국선생의 정의가 그래도 명확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친일문학이란 “주체적조선을 상실한 맹목적 사대주의적인 일본예찬과 추종을 내용으로 하는 문학”이라고 하면서 또 “여기에는 친일파의 문학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자의 작품일지라도 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재만조선인문학에서 친일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임종국선생의 이 결론만으로는 안된다. 임종국선생의 결론에 따라 만주국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아야 한다.

둘째, 만주국과 일제의 관계에 대하여

만주국(滿洲國)이란 완전히 일본제국주의가 만들어놓은 괴뢰정권으로서 오늘까지 중국의 수많은 역사사전에 올림말로 될 자격도 없는 낱말이다. 필자는 겨우 연변인민출판사에서 출판한 “역사사전”에서 만주국에 대한 해석을 찾아볼 수 있었다.

만주국: 1931년에 일본제국주의가 중국의 동북(만주지역 ? 필자 주)을 침점한후 만들어낸 괴뢰정권. 1932년 3월에 장춘에서 성립되었는데 부의를 “집정”으로 삼고 년호를 대동이라 하였다. 1934년 3월에 “만주제국”이라 칭하고 “집정”을 “황제”로 개칭하였으며 년호를 “강덕”이라 하였다. 1945년 중국인민의 항일전쟁의 승리와 함께 무너졌다.

만주국은 우선 일제침략정책의 산물이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의 동북지역은 20세기 초 소용돌이치는 역사의 현장이었으며 특히 일제의 침략의 공간이었다. 동시에 동북은 반일투쟁의 무대였다. 조선의 독립군이 들어와서 반일무장투쟁을 전개하였으며 1928년부터 사실상의 동북의 최고통치자였던 장학량이 일제의 만주점령을 저항하기 시작하였으며 조선과 인접한 동만지구는 공산주의운동의 요람으로 되었다. 게다가 동북은 일제의 가상적인 적 소련을 공격하는데 있어서 유일한 발판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제는 1931년 “9.18 사변”을 일으키고 일거에 동북을 점령하였던 것이다.

국제상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말미암아 동북을 일본의 영토로 만드는데는 무리가 있었기에 일제는 한국과 대만에서처럼 총독제에 의한 직할통치가 아닌 괴뢰정권을 통한 간접통치의 형태를 취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건립한 것이 자발적인 의지에 의하여 건국한 것처럼 위장한 “만주국” 이었던 것이다.

滿洲國은 건국선언에 “왕도락토”와 “오족협화(五族協和)”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지만 그것이 일본의 식민국가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滿洲國황제 부의(簿儀)는 “집정” 취임시에 국방과 치안유지를 일본에 위탁하고 관동군사령관이 임명하는 관리를 동용할 것은 약속하였다. 예를 들면 국무원(행정원) 각 부의 부장에는 중국인이 임명되었으나 실권은 관동군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그 지휘를 받는 일본인 차장이 장악하였다. 특히 관동군사령관은 관동군장관과 滿洲國과건 특명전권대사를 겸임하여 사람들로부터 滿洲國에 군림하는 상황(上皇)”으로 불리었다.

“滿洲國”은 지배권을 틀어쥐고 일본침략자와 봉건관료매찬세력들이 서로 결탁한 괴뢰정권이다. 무릇 滿洲國의 대정부침은 모두 일본관동군이 제정하였고 또 일본사람들이 층층에서 집행하였다. …… 일본제국주의는 동북에 자기들의 괴뢰정권을 세우고 완전한 식민통치체제를 건립한 동시에 <치안유지법>, <장항보갑법> 등 일련의 법령들을 발표하고 잔혹한 파썬통치를 실시하였다.

이것은 “조선족혁명투쟁사”에서 滿洲國의 국체에 대한 서술이다.

滿洲國의 괴뢰성과 일제의 滿洲國의 파시즘통치에 대하여 한 일본학자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일본군의 진압행동과 치안정책은 극히 가혹한 것이었다. 민간인이 소지한 무기는 조직적으로 압수되고 특히 조선국경지대에서 요리용식칼조차 10가구당 한 개밖에 허가되지 않은 촌락도 있었다. 1933년 12월에는 전근대적인 보갑제가 채용되고 1935년에는 3개년 계획으로 전 동북지방에 실시되었다. 더구나 1936년부터 항일계릴라군과 일반주민의 연락을 끊기 위한 집단부락정책이 실시되었다. 그것은 치안유지가 곤란한 지역의 촌락을 철거하여 주민을 일정한 보호촌에 강제적으로 이주시키는 것으로서 보호촌의 수는 1937년 전반까지 2천을 넘었다. 이리하여 滿洲國에는 일본이 선전한 왕도락토와는 정반대의 철저한 탄압정치가 벌어졌다.

이렇다면 滿洲에서 친일이란 僞만주국의 건립 이후에는 친만이요, 항일이란 곧 반만인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재만조선인문학 중 친일문학에 대한 고찰에서 이 전제적 명제를 무시할 수 없다.

셋째, 친일과 반공의 관계문제

사실 이 문제는 긴 설명이 요청되는 문제가 아니다. 1921년 중국공산당이 성립된 뒤 중국의 모든 정치무제는 모두 중국공산당과 연계된다. 동북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민족주의자들과 아나키스트들의 반일투쟁이 있는 것 역시 사실이지만 僞滿洲國이 건립된 1930년대 이후부터는 항일무장투쟁의 주력은 중국공산당의 영도 하에 있는 동북항일연군(東北抗日聯軍)이었다. 그러므로 항일투쟁에서 반공과 반혁명은 늘 친일과 연계되는 것이다.

이상 몇 개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우리가 재만조선인문학에서 친일과 친일성향에 대한 연구의 전제가 된다.

2. 대표적인 친일문학작품에 대하여

- 3막연극 “김동한” (“만선일보” 1940년 1월 10일 ~ 21일)

이 극은 해방 전 동만(東滿)에서 악명 높은 친일주구 김동한(金東漢 1891~1937)을 기리기 위해서 쓴 것으로 “만선일보” 1940년 신춘문예응모에서 1등 수상작으로 뽑히고 1940년 1월 10일부터 24일까지 연재되었다.

김동한은 1891년 조선 함남 서천(瑞川)사람으로서 섬진보교와 평양대성중학을 졸업한 뒤 러시아 10월혁명에 참가했다가 배반하고 반소반공 친일분자로 전락하였다. 1933년 김은 관동군의 신임을 얻어 그해 가을에 간도협조회를 창립하고 11월에 동변도특별공작부 본부장에 임명된 악질적인 친일활동을 벌려나갔다. 1937년 12월 김동한은 가목사헌병대 대장의 명령에 따라 삼강성의란현(三江省依蘭縣)에 가서 귀순설복활동을 하다 항일연군 5군독립사 정치부주임 김정국(金正國, 1912~1938)의 부대에 의하여 격살되었다.

그가 죽은 후 일본정부에서는 그에게 옥일훈장(旭日勳章)을 수여하고 1938년 12월에는 연길공원에다 그의 기념비를 세웠다. 그리고 이 연극도 1940년 1월 11일 신경조선인협화문화부 연극반에 의하여 상연되었다.

이 극의 제 1막은 1933년 간도협조회가 조직되던날 저녁 김의 자택에서 일본인 三宅과 다른 친일분자 손기환 등이 국수를 먹으며 협조회의 건립을 축하하는 장면이다. 여기서 중점의 김의 “빛나는” 반소반공친일의 경력을 칭송하고 일사보국(一死保國)의 결의를 다지는 것이다. 김은 노골적으로 “대일본제국”을 “내 따뜻한 나라”라 하고 “대일본제국국민”을 “내 동포”라고 부르면서 “내 동포를 위하여 내가 죽는 날까지 내 나라를 위하여” 싸우겠다고 떠버렸다.

제 2막. 1937년 2월 김은 동변도 어느 산중의 “비수(匪首)의 집에 들어가 그와 그가 거느리는 1500명 병정들을 귀순시키는 과정을 썼다. 여기서 중점은 귀순공작에서 김의 뛰어난 수완을 보여주면서 아울러 “비수”를 설복하는 김의 입을 통한 건국이래 滿洲국의 “휘황한” 성과에 대한 찬양이다.

제 3막. 1937년 12월 명령을 받고 가목사방면으로 출동하기 직전의 김의 언행을 쓰고 있다. 이 막은 다시 두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바 전반부는 김의 부인한테로 돈을 꾸러 온 동리로파의 입을 통하여 김의 소위 뛰어난 인격과 재간에 대한 칭송이고 후반부는 불길한 꿈과 예감으로 불안한 부인의 간절한 권유에도 마다하고 제시간에 집을 떠나 전선으로 출발하는 김의 충성심과 희생정신을 치하였다.

“지금은 국가가 위기에 처하여 있는 때이다.” “개인의 생명을 아끼는 곳에 국가의 안태가 없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로 나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국가를 위하여 쓰러진다고 하면 그 외의 만족 더 없다… 滿洲족 오족협화 왕도락토의 滿洲국 이러한 이상국가에 치안을 괴란하고 있는 그들에게 귀순공작을 하다가 그들의 손에 쓰러진다고 하여두 나의 뒤에는 또 반드시 또 한 동한이가 출전하여 나의 일을 계승하여줄 것이라고 믿는다”

여기서 국가는 곧 대일본제국이다. 김의 마음 가운데는 언녕 조선이라는 개념이 없어진 것이다.

이 극이 발표된 후 박영준씨는 “‘김동한’ 독후감”이라는 평론을 발표하였는데 글에서 박씨는 “존경할 만한 사람을 내세우고 또 대중 앞에 소개하여야 할 것은 후배에게 지워진 한 책임이며 따라서 그의 남기고 간 발자취로써 이 세대의 서광을 만든다는 것이 맛당히 남은 사람의 할일이다”라고 하면서 이 극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고 “예술작품은 어디까지나 예술적

芳香이 도는데 그 가치가 있는 것이며 생명이 있다. 의식적 작품이라고 할지라도 예술성을 상실했다면 작품으로서는 실패며 또는 작품적 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맞는다.” 라고 하면서 이극의 결합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다.

- 친일적인 수필

극 “김동한” 처럼 노골적으로 일제나 친일주구를 노래한 작품은 많지 않다. 그러나 滿洲국의 왕도락토 오족협화의 이념을 선전하면서 대동아의 맹주국인 일본과 발을 맞추고 일본정신을 따라 배우라고 호소하는 글은 적지 않다. 우리는 극히 제한된 재료를 통하여도 이러루한 잡필, 수필, 수감, 기행문, 답사기, 실화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글들은 거개가 무명문인들에게서 나왔다고 하지만 이런 글들은 사람의 혼이 어느 정도까지 미칠 수 있는가를 충분히 보여주는 실례들이다.

할빈의 권충일(權忠一)이 쓴 “새 국민적 자각” 이라는 글에서는 滿洲에서 사는 조선인은 滿洲국의 새 국민으로 되었다고 강조하면서 마땅히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와 독일 그리고 “우리 일본” 을 본보기로 삼고 국민적인 자각을 하여야 한다고 절규하고 있다. 작자는 공개적으로 바야흐로 인류대도살의 제 2 차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세계각국민들에게 노복을 강요하는 파시즘 독일과 일제를 칭송하고 있으며 조선인의 민족적 자각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日韓合併이 된지 30 여년! 朝鮮人은 여러 개의 複雜한 政治的 段階를 過한 오늘날은 日本帝國의 地域單位 속에 包攝되야 日本帝國의 一部分으로써 無限한 生長을 하여왔다. 따라서 今日의 朝鮮人은 一個의 民族單位를 形成한 民族이 아니라 完全히 日本民族으로 再編成된 皇國國民인것을 自覺하지 않으면 안된다. …… 우리 민족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歷史적으로나 地理적으로 보나 日本民族으로 純化됨에 依하여서만 可能하다는것을 徹底히 自覺하지 않으면 안된다. …… 滿洲國建設의 完了와 그것을 기축으로 하는 東亞新秩序建設은 우리 일본민족의 雙遣에 질머지워진 크나큰 世界史的任務이다. 이것을 有美히 遂行하고 못나는데에 本民族全體의 運命까지도 左右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작자가 부르짖는 민족자각이란 바로 일본민족으로서의 자각이며 새 일본민족으로서의 자각이다. 이보다 더 친일적인 언론이 있을 수 있을까?

春園 이광수 같은 사람도 1940 년 신년차사 “在滿半島同胞께 올림” 에서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간데마다 日本사람되시기 바라으며 … 지원병에도 많이 응모하시고 內地式 인세명도 定하시기 바랍니다…” 를 운운하는 판국에서 지방의 문인들이 혀끝에서 이와 같은 도깨비소리가 나오는 것이 크게 경악할 것은 아니다.

“在滿同胞의 覺悟” (“만선일보” 1940 년 1 월 26 일)라는 수감의 작자도 서슴지 않고 “滿洲國은 王道樂土의 新興國家이며 東亞新秩序建設의 據点이요 또 協和萬邦의 社會舞臺” 라고 하면서 “日滿 不可分의 緊密한 一德一心과 五族協和 東洋平和 ……” 를 운운하고 있으며 수감 “우리들의 진로” (“만선일보” 1940 년 1 월 13 일)에서도 滿洲國에 대한 충성을 고취하고 있으며 수필 “哈遜濱에서” 는 “民族 協和實踐의 第一線重點地 ” 를 운운하고 “渡江에 感懷 깊은 安東省” 에서는 이른바 滿洲건국 後의 조선인 滿洲進出의 의의를 운운하면서 “센치와 哀愁는 完全히 차취를 감추고 다만 光明과 希望이 앞을 빛나게 할뿐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글은 특히 마지막에 지리학자 리히트호夫的 1869 년(明治 2 년)5 월 18 일 ? 7 월 8 일의 “滿洲旅行記” 를 인용하는 것으로 이른바 朝鮮人의 우월성을 설명하면서 支那人을 내리깔고

있다. “遼河의 運命”의 작가도 “興亞鐵馬”의 기세와 滿洲建國十周年의 변영을 찬양하고 있다.

- 친일시

윤해영의 “樂土滿洲”와 “拓土記” 그리고 “오랑캐고개”가 滿洲國을 찬양하는 친일시라는 것은 학계에서 거의 이의가 없다. 이런 시에서 시적 화자는 滿洲國의 건국이념인 오족협화, 낙토만주를 칭송하고 있다.

비록 윤해영은 “선구자”의 작사자로 존경을 받았었지만 이미 많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선구자”는 “용정의 노래”의 변조이고 “용정의 노래”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구자”보다는 많이 틀린 작사였고 그 격조 또한 썩 낮았음이 밝혀졌다.

五色旗 너울너울 樂土滿洲 부른다.

百萬의 拓土들이 너도나도 모였네.

우리는 이 나라의 福을 받은 백성들

希望이 넘치누나 넓은 땅에 사르리.

이것은 윤해영의 “樂土滿洲”의 제 1 연이다. 이 시는 1943년 新京(지금의 길림성 長春) 滿鮮學海社에서 출판한 滿洲建國 10주년기념문집 “半島史話와 樂土滿洲”에 처음 실렸는데 재만의 백만 조선인을 “福 받은 백성”, “흙을 맡은 일꾼”, “터를 닦는 선구자”라고 자랑스럽게 읊고 있다.

역시 “半島史話와 樂土滿洲”에 처음 실린 “拓土記” 그리고 “滿洲詩人集”에 처음 발표된 “오랑캐고개”에서도 우리는 소위 滿洲國이라는 이 현실을 아무 이의가 없이 받아들이는 윤해영을 만날 뿐만이 아니라 행복에 겨워 감격스럽게 滿洲의 생활을 노래 부르는 윤해영을 만날 수 있다.

윤해영의 이 시와 작자 미상의 민요 “滿洲아리랑”에서 “젓풀이 흐른 기름진 땅에/五族의 새 살림 평화롭네”, “비었던 곡간에 五穀이 차고/일담배 주머니에 쇠소리 나네”라는 현실가식이나 최수복 작 “滿洲메나리”에서 “비개인 하늘에 오색이 영농/거즈른 이 강산에 새봄이 왔네”, “아무렴 그렇지 그렇구 말구/봄마지 나서는 滿洲라네” 등 시구는 모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친일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포영 작 “예서 기리 사리다” (“만선일보” 1940년 2월 24일 자)에서도 작자는 떠나온 고향이 비록 그리움은 하지만 情들면 고향이 된다면서 예서 길이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滿洲를 노래하고 있다.

滿洲라 널븐땅은 갈아내도 남는구료

밤이면 胡酒 들고 아리랑에 흥도 김소

나라도 五族協和니 예서 기리 사리다.

시에서 보여준 평화스럽고 행복한 생활은 당시 재만조선인들의 실제와는 거리가 너무나 멀다.

s.s.y 작 “氣焰” (“만선일보” 1940년 4월 15일 자), 송석영 작 “詩人” (“만선일보” 1940년 4월 27일 자), 송철리 작 “庚戌元旦” (“만선일보” 1940년 1월 17일), 이 세수의 시는 모두 滿洲국의 새 질서와 큰 승리를 노래하고 있다.

이밖에 최재철 작 “雪夜日記” (“만선일보” 1940년 1월 12일 자) 역시 滿洲의 평화와 행복을 읊은 것이다. 작자가 시의 뒤에 직접 주해를 단 것처럼 이 시는 滿洲광야에서 뺨이를 잡겠다고 약속한 그대에게 드리는 것이었는데 시적 화자는 눈 내리는 밤의 고요에 기탁하여 행복스러운 생활을 읊으면서 그대를 그리고 있다. 전편 20행의 시에서 “이 밤은 웨 이 다지도 행복하오지”, “영원한 행복이 이 가슴에 있사운데/이 행복을 안우시려 안오시렵니까”, “서러운듯 하면서도 행복되온 밤” 등 幸福이라는 단어가 네번이나 쓰여졌다.

조학래 작 “流域” (“재만시인집”), 리길생 작 “安奉線” (“만선일보” 1940년 6월 2일 자), 이 세수의 시는 모두 지난 날 이른바 비적들의 소란에서 못살겠던 滿洲가 오늘은 비적들이 쫓겨가서 행복스럽고 평화스러운 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쓰고 있다.

- 친일소설

박영준의 “密林의 女人” (소설집 “썩트는 대지”)

15세에 共匪에 잡혀가 10여년에 거쳐 “산속생활” 을 하던 끝에 다리에 손상을 입고 일본군 토벌대에 의하여 포로로 잡힌 김순이(金順伊)를 정신적으로 귀화시키기 위하여 집에 데려가 놓고 “나” 가 과란곡절을 겪었다는 이야기다.

이 소설에서 “나” 는 협화회에 상당한 직위를 갖고 있는 회원임이 분명하다.

이 소설에 대하여 김호웅 교수는 “역시 滿洲국의 기본국책에 부응한 작품” 이라고 하였으며 오양호 교수는 “밀림 속에서 10년간 살다가 용정의 문명사회로 돌아오는 원시적 인간의 삶은 다룬 작품이다.” 라고 하였다.

이 작품을 읽을 때 우리는 작자가 항일유격전사에게 “공비(共匪)” 라는 신분을 부여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앞에서 분석한 시에서는 항일전사들을 “공비” 라고 표현하지 않고 “비적”, “호적”, “마적” 등으로 표현하였지만 작자는 직접 “공비” 라는 낱말을 사용하고 있다. 작자의 의도는 명확해진다.

소설에서 10년간 항일활동을 한 이 여자는 세상도 모르고 시대의 변화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정상적인 상식과 감정을 상실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금반지 아까운 줄도 모르고 돈이중한 줄도 모르고 여자로서 몸단장도 할 줄 모르며 예의도 모른다.

그런데 인간조건을 완전히 상실한 김순이가 “나” 라는 협화회 회원의 인내성 있고 인간적이고 희생적인 교육과 감화에 의하여 다시 인간생활로 복귀하고 인간세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김순이와 대조되는 “나” 는 아주 긍정적인 형상으로 창조하고 김순이라는 항일전사와 “나” 라는 협화회 회원의 대결에서 “나” 는 철저한 승리를 쟁취한다.

이 소설보다 더 반공적이고 친일적인 작품은 필자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혹자는 여기서 작자 박영준이 노린 것이 반공이지 친일이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논리는 40년대 滿洲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전혀 통하지 않는다.

한찬숙의 “취직” (“만선일보” 1940년 8월 19일)

한찬숙은 소설집 “씩트는 대지”에 오죽협화의 이상을 노래한 “초원”을 발표한 작가이다. 그의 다른 한편의 소설 “취직”은 편폭은 짧지만 친일정서가 깊이 스며들어 있다.

원래 황해도 도청에서 농업기사로 있던 김동수(金東洙)는 면직을 당하고 간도땅 연길에 와서 일자리를 찾아 헤매던 중 연길일본인민회장 M씨의 부인의 호감을 얻어 그 집의 인분을 처내는 일을 하게 되고 임금 10원을 받아 들고 감개무량했다는 이야기이다.

작품의 주인공은 완전히 민족의 얼을 상실한 인간이다. 우선 그는 간도에 와서 오로지 일본인민회회장만 찾아 일거리를 구걸한다. 여기서 우리는 이른바 五族協和는 실제로 보면 일본인 중심의 협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그는 일본사람의 인분을 치는 일을 달갑게 받고 또 최선을 다 해 깨끗하게 치워주고 또 자기의 돈을 써서 못을 사다 일본인 집의 문을 수리해주고 또 어린 아이의 놀음감을 수리해 준다. 임금으로 받은 돈 10원을 받아 들고 무한한 희열에 잠기고 노동의 신성함을 느낀다. 작자는 일본인들을 위해 성심껏 봉사하는 것만이 진정한 “취직”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한다.

- 안수길의 “土城” (안수길 창작집 “北原”)

이 작품의 주인공 명수와 학수는 이복형제인데 명수는 아버지를 따라 농사에 안심하지만 학수는 과경초기부터 돈벌이에 열중하다 나중에 비명에 죽는다.

이 작품의 친일성향은 그 제목에서부터 알아낼 수 있다. 본 논고의 앞부분에 언급했던 것처럼 일제는 날로 세차게 타오르는 항일투쟁을 압제하기 위하여 이른바 “집단부락”을 만들고 자위대를 조직하여 토성을 쌓아 항일부대와 민중의 연계를 차단시키려 하였다. 안수길의 “토성”은 우선 이 집단부락시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주인공 명수는 자위대 부대장이고 마을사람들도 토성을 쌓는데 열심히 참가한다. 그래서 소설제목이 “토성”이다.

다음 이 작품에서 안수길은 “滿洲에는 새 나라가 탄생하였고 간도에는 새로운 정치가 베풀어졌다. 大同원년 3월 9일 건국으로 하여 새로 탄생된 지린성주연특과행정관사처에서는 비습의 황폐한 농촌의 갱생을 위하여 가지가지 특전과 편의를 베풀었다.”고 하면서 滿洲국의 업적을 치하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이 소설에서 조선인들은 모두 이른바 패잔병들과 토비들(실제상에서는 항일유격부대)의 피해를 받고 있다. 명수의 집도 토비들에 의하여 다 불태워지고 명수의 형 치수는 비적들과 싸우다 쓰러진다. 이 부대를 작자는 왕덕림의 부대라고 했지만 왕덕림의 부대 역시 친일은 하지 않았고 나중에 공산당의 설복을 받아드려 항일을 받아드렸다. 작자가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동북지구에서 조선인의 생활을 방해하고 파괴하는 주범은 항일유격대라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김호웅씨가 자기의 논저에서 지적한대로 이 작품에는 일제의 식민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옹호하는 문자가 아주 많다. 여기서 김호웅의 견해를 간략히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1. 이제는 어두운 정치가 아니었다.
2. 정부에서는 다시금 농촌의 갱생을 위하여 한가지 특전을 베풀었다.
3. 반일항일의 완만한 꿈을 채 못 깨이고 처처에서 준동튼 패잔비도 ……
협화회특별공작대의 宣撫工作으로 일편 섬멸되고 일편 귀순하여……

4. 주민은 당국과 함께 이 새 나라 건설의 파괴자를 방어하고 응징하는데 한덩어리가 되었다.

사실 이와 같은 문자는 이 작품에서 설교로만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생한 문학형상으로 창조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명수의 형 학수의 형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보기로 하자.

학수는 안수길의 용어를 빌면 “벼혼”이 없는 “양복선인”이다. 그는 滿洲에 들어올 대부터 착실한 농군이 되겠다는 생각이 없었으며 장사길에서 일찍 아버지가 피땀으로 모은 너쌍의 논을 하루 아침에 날려버리고 다시 첩을 돈을 꼬셔서 트럭을 사서 운반업에 달라붙었으나 장사가 한참 잘될 때 비적의 습격을 당하여 차가 불에 타버리었고 그 자신은 크게 중상을 당하여 좋은 시기와 돈을 몽땅 부어넣었다.

다음으로 운반업에서 실패한 학수는 “따옌” 즉 아편밀수를 통이 크게 시작했으나 경도선 차중에서 불의의 변으로 전재산을 날려보내고 만다.

그 변이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또 비적 한명이 무기를 든 짐을 들고 차에 올랐다는 정보를 수집하고 영사관 수사요원이 차에 올라 수색하는 중 비적은 차에서 뛰어내리고 비적이 들고 올랐다는 그 짐을 찾는 과정에 학수의 아편을 숨겨놓은 축음기와 통조림을 압수당했다는 것이다.

보는 바와 같이 학수의 장사를 방해하는 것은 비적이다. 비적이 학수의 앞길을 파괴한다. 뿐만 아니라 학수의 죽음 또한 비적 때문이다.

차에서 아편을 몰수당한 학수는 이제 집에 돌아가 명수의 결혼준비로 챙겨둔 돈을 훔쳐갈 생각에 마을에 돌아왔는데 한 마을에는 항일유격대를 막기 위한 토벌대가 주둔하는 집단부락이었는데 바야흐로 비적의 습격을 받아 불바다가 되고 있었다. 하지만 산등성이 저편에 있는 학수네 마을은 아직 깊은 잠에 들어있었다. 학수는 동생 명수네가 비적의 습격을 받으면 자기가 노리는 돈도 빼앗기게 될거라는 생각에 비적의 습격에서 마을을 구할 결심을 하게 된다. 하여 학수는 명수네 마을어구에 불을 지르고 그 불을 신호로 하여 명수네 마을은 화를 면하게 되고 학수는 타죽은 시체로 발견된다.

우리는 안수길이 학수의 비참한 죽음을 비적의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음을 충분히 보아낼 수 있다.

1. 기타 문학작품의 친일성향에 대하여

완전한 친일문학이라고 할 수 없지만 작품에 정도부동하게 滿洲의 건국이념에 응부하고 있는 소설이나 시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작품은 친일성향을 가진 작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정리에 이의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므로 나름대로 분류하였다.

아무튼 친일과의 손에 의하여 창작된 작품이 아니고 총체적인 경향은 친일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친일친만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작품이 적지 않다.

- 친일성향의 시

먼저 시 “大地의 母” (“만선일보” 1940년 1월 11일자)를 보자.

“뜰 大地의 뜰이란 生의 만족/녹음이 꺾이는 大地는 기름지오/저기 누인애기 또 天下의 애기들의 낙원을 이 땅에 建設함이/나의 唯一의 짓봄이요.” 라는 시편에서 작자는 만족스러운 생을 누리는 시적 화자로 이 땅에 낙원을 건설하는 기쁨을 읊고 있다.

여기서 大地나 이 땅이 바로 당시 한창 떠들던 낙토만주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살려는 정열을 안고 보드라운 생활을 갈망하면서 애기를 보리밭머리 살구꽃아래 그들에 눕혀놓고 김을 매는 여인의 형상에는 보통농민여성의 꿈과 노력과 모지름이 보인다.

최중식의 “밤” (“만선일보” 1940년 3월 10일 자)은 고요한 산촌의 밤을 쓰고 있는데 동네앞에는 물소리가 졸졸 들리고 하늘에는 쪽배 같은 주름이 흘러가고 별들이 조으는데 마을에는 꽃이 핀다고 쓰고 있다. 이 시도 1940년 3월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보면 비현실적이다. 그러나 이 시도 보통민초의 평화로운 삶에 대한 갈망으로 읽을 수도 있는 것이다.

신상보 작 “사막” (“滿洲시인집”)도 滿洲국의 오죽협화의 이념에 따라 몽고사막을 아시아의 꿈 많은 나라이고 명일이 즐겁게 해뜨는 나라라고 낭만적으로 읊고 있다. 1940년대 초반이라는 시점에서 몽고에 대한 어떤 의식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언제나 즐겁고 해 뜨는 나라? 몽고사막에 대한 시가 나올 수 없다. 그러나 이 시도 텍스트에서 풍기는 정서는 작자가 사막에서 받은 진실한 감각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일부 소설의 친일성향에 대하여

- 안수길의 “새마을? 續 새벽” (창작집 “복원”)

이 소설에 대하여 김윤식 교수가 “노골적인 滿洲국정책수행을 위한 작품에 속하는 것이다.” “ ‘새마을’ ” 은 ‘새벽’ 의 세계를 이어가지 못한 너무 동떨어진 작품이 되었다.” “낙토사상을 드러내는 國策문학의 성격을 드러낸다.” 고 지적한바 있으며 채훈교수도 “기막히고 처절한 현실을 무시하거나 外面하는 자세가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와 無關하지 않다” 고 지적한바 있다.

이상의 결론에 수긍하면서 필자는 여기서 두 가지를 보충하려 한다.

첫째, “새마을” 은 모든 중대한 시대적 모순이 회피되고 있다는 것. 이 작품에는 30년대 초 40년대 말 재만조선인의 생활에서 가장 주요한 모순이었던 일제와 조선인의 모순이 보여지지 않으며 계급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모순인 계급모순 역시 보여지지 않는다. “새벽” 에서 그렇게 처참하던 창복이가 배움의 과정에서 행복을 찾는다라는 이야기는 비현실적인 조작이 아닐 수 없으며 창복이가 설사 배움에 성공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수난극복의 기본적인 수단으로 될 수도 없는 것이다.

둘째도 “새마을” 에서 모든 인물들은 모두 정신건망증에 걸려있다. “새마을” 의 전편 강덕 21년 즉 1935년에 쓴 “새벽” 에서는 최창복의 아버지는 인생의 온갖 수난을 다 겪는다. 도강하여 금방 호(胡)가지팡에 온 그는 빛을 내어 셋집을 얻고 소를 얻어오고 양식도 해결하였으나 그 빛을 갚을 수가 없어 소금밀수를 하다가 잡혀 100원의 벌금을 물게 되고 또 그 100원 때문에 딸 복동예를 얼방지주 박치만에게 첩으로 허하고 복동예는 또 이를 참을 수 없어 죽어버리고 따라서 복동예 어머니도 정신병자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7년이 지난 1942년에 와서 이 주인공들은 그 비참한 사실들을 죄다 깡그리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심리학적으로도 불가능하며 정신분석학적으로도 불가능하며 실제 삶에서도 불가능하다.

사실은 창복이나 창복의 식구들이 건망증에 걸린 것이 아니다. 작자가 건망증에 걸린 것이다. 그의 의도적인 국책에 적응한 조작이라고 밖에 달리는 해석할 수 없다.

비록 이상과 같은 문제점이 있지만 “새마을”은 연구가치가 있는 작품임에 틀림없다.

80 년대에 “새마을”을 혹평하던 김윤식교수는 90 년대 말에 와서 이 작품을 놓고 “농업(지광살이)에서 벗어 나가기 제기되는 층위”, “글 배우기 층위”에서 고찰하면서 이 작품이 주제를 “창복소년의 ‘운명개척의 가능성’으로 떠오른 것”이라고 개괄하였는데 흥미롭다.

특히 “새마을”에서 창조된 온돌쟁이 고령감의 형상에는 滿洲이민으로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조선인들의 생명저력과 생활지혜를 생동하게 그려놓은것으로 문학적 가치가 있다고 느껴진다.

안수길의 다른 한 소설 “牧畜記”는 학자들의 견해가 비교적 일치한 작품으로서 안수길의 장편소설 “북향보(北鄉譜)”의 추형으로서 의의가 있는 작품이다.

이 소설에 대하여서는 이명재교수가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목축기”는 滿洲개척이주민의 삶을 그리되 이른바 滿洲國 수립 후 목장과 가축사육을 다루고 있어 “벼”와는 상이하다. 滿洲國 건립 8년 후 농업고출신의 찬호가 그곳 사립중학의 농업교사를 그만두고 와우산 목장마을을 경영하는 것이다. 만주국 건립이전의 어두웠던 “벼”의 찬수경우보다 한결 밝고 ... “벼”보다 더 滿洲의 건국이념에 동조된 협화정신이 드러나있는 농촌소설로서 재검토할 소지를 안고있다.

김호웅교수도 이 작품을 놓고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일제는 일찍부터 동북의 광활한 토지를 이용하여 가축사육업을 발전시키려 하였다. ... 이 소설의 주인공은 자진해 농촌에 내려가 묵묵히 일한다. 말하자면 찬호는 당시로서는 시급한 농촌회귀의 신념을 갖고 있으며 그 신념을 논변(論辯)으로 강조하는 지극히 온건하고 합리적인 실천형인물로 볼 수 있다. 그가 하는 목축업은 분명 滿洲국강국의 시책에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이상 두 교수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한 마디 더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 소설은 인간과 인간의 대립이 아닌 인간과 자연의 갈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로우승의 형상은 이를 잘 체현하고 있는데 그의 성격은 이 작품에서 아주 여유가 있고 평화적이고 유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것 역시 비현실적이기는 하지만 滿洲에 뿌리를 내려 이 땅의 주인이 되겠다는 주인공의 신념과 노력은 역시 한 방면으로 재만조선인의 생활의지를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 안수길의 장편소설 “북향보”

이 작품에 대해 학자들은 적지 않은 견해차를 보이고 있지만 그 국한성과 문제점에 대한 견해는 거의 통일되고 있다.

우선 김윤식교수는 “북향보”의 현실인식의 낙관성과 창조된 시공간의 폐쇄성에 대하여 심각히 분석한 기초 위에서 “만주국건설리념에 밀착된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엄밀히 말하면 친일(황도)문학인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김중호도 “북향보”의 국한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안수길이 제시한 북향정신이 滿洲국이라는 허구적 환상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왕도락토의 이념 뒤에 일제의 대륙적 침략의 본질과 의도가 숨어있었고 일제의 패색이 짙어가는 1945년 초의 시점에서 滿洲유이민의 미래를 북향정신의 실천이라는 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안이한 작가의식을 드러낸다. …

“북향보”에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함께 당면의 과제를 나름대로 부각시켰지만 북향정신이란 추상적인 관념만 성급하게 제시했을 뿐 정책의 문제가 내포하고 있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데는 실패했다.

이명재교수도 “북향보”의 친일요소에 대하여 분석하면서 “여러군데에서 친일적인 요소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그것은 비록 정확도일지라도 그가 滿洲벌 농촌생활 개선의 일환으로 고안해낸 孤聲會에서의 式順에서도 드러나 있다. 이를테면 생일모임행사에 마저 建國神廟遙拜, 宮城遙拜, 默禱, 時局省民의 誓詞齊唱을 행하였다. … 그리고 주인공인 오찬구의 일본인에 대한 저자세나 북향정신을 낙토만주의 건국정신에 기여하는 것으로 행동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참고로 그때 일제가 조선인에게 강요했던 “서사” 즉 황국신민서사(皇國臣民誓詞)란 어떤 것인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신민서사는 “아동용”과 “성인용” 두 가지로 나뉘어 사용했는데 아동용서사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대일본제국의 신민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천황황제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인고단련하여 훌륭하고 강한 군민이 되겠습니다.”

성인용서사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들은 황국신민이다. 충성으로 君國에 보답하리라. 2. 우리들황국신민은 서로 信愛協力하여 단결을 굳게하리라. 3. 우리들 황국신민은 忍苦鍛鍊됨을 길러서 皇道를 宣揚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정확도도 명석한 민족주의자는 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북향보”는 “토성”과 마찬가지로 소위 비적 즉 항일유격대에 대한 적대감을 나타내는 장절을 설치하고 있다. “깨끗한 일생”에다 특별히 한명식이 비적들과 싸운 경택에 대한 회고를 삽입하고 있다.

한명식은 “북향보”에서 오찬구가 정확도의 북향정신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에서 마준영, 현암, 강서방 등 몇이 안되는 “먼길로 가는 동행” 중의 하나인데 다섯 살 때 滿洲로 온 그는 비교적 성공한 아버지의 혜택으로 소학을 졸업하고 중학을 다니었다. 그런데 왕덕림 휘하라고 자처하는 무기를 가진 도적들의 습격에 수전 10여 쌍을 소유하고 먹고 사는데 근심이 없었던 아버지가 비적들의 짐꾼으로 끌려가 죽음을 당하고 명식이는 아버지를 찾아 비적의 소굴에 들어가 복수하고 그 부락을 떠나 이리저리 다니면서 수전개간사업에 종사하다가 이 목장에 오게 된다. 작자의 의도는 아주 명백한 바 한명식이 오찬구에 대한 우정이 변하지 않고

“먼길로 가는 동행”이 될 수 있는 것은 가슴에 비적에 대한 그 원한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향보”를 읽으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렬한 느낌 중의 하나가 그들이 시국에 대한 판단이 너무도 명랑하다는 점이다. 정학도, 이기철은 구(舊)지식인이라 할 수 있지만 오찬구, 한명식 그리고 학교 교원 석순임, 기자 마준영, 작가 현암, 가수 애라 등은 모두 한결같이 재만조선인의 북향 다시 말하면 제 2의 고향을 건설하겠다는 생각밖에는 아무것도 모른 낭만주의자들이고 유토피아에 빠져버린 사람들이다.

“북향보”의 문학사적 의의는 많은 학자들이 언급했기에 여기서 더 반복하지는 않기로 한다.

- 현경준의 “돌아오는 인생”(“만선일보” 1941년 10월 ~ 1942년 3월)과 “마음의 琴線”(경성 弘文書館, 1943년)

현경준의 장편소설 “돌아오는 인생”과 중편소설 “마음의 琴線”은 모두 작자가 “썩트는 대지”에 발표했던 단편소설 “流氓”의 개작이다. 그러므로 현경준의 이 두 작품에 대한 정확한 접근은 단편소설 “유맹”에 대한 고찰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유맹”은 만주국이 건립된 후 소위 인재들의 재활용을 위해 설치한 補導所에 수용된 피보도자들의 개조과정을 쓰고 있다. 탈주와 악행과 패륜을 거듭하는 아편중독자들은 보도소장과 자위단장의 인고와 주선으로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는데 그중 명우의 변화가 가장 대표적이다. 그는 비록 한 시기 엄중한 아편중독자였지만 그래도 인성을 채 상실하지 않아 인신매매의 덫에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할 변한 순녀를 구하게 되고 또 보도소장의 주선으로 순녀와 결혼하게 된다.

이 작품은 1941년에 발표된 단편소설이라면 현경준은 또 1941년 10월부터 1942년 3월까지 단편소설 “유맹”에 기초하여 확대한 장편소설 “돌아오는 인생”을 발표하였으며 또 1943년 11월에는 “유맹”의 이야기에 의하여 개작된 것인지 아니면 “돌아오는 인생”을 축약하여 개작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중편소설 “마음의 금선”을 창작하여 서울의 弘文書館에서 출판하였다.

현경준의 “유맹”과 “마음의 금선”에 대하여 앞에서 인용한 바 있는 김윤식, 채훈, 이명재, 김호웅 등 교수들의 논문들에서 모두 국책문학경향이 다분히 보인다고 지적한바 있다. 최근 장춘식씨와 이광일씨가 논문을 써서 부동한 견해를 발표하여 주목된다.

이광일씨는 논문 “해방 전 현경준소설문학 연구”에서 “표층구조와 내면구조라는 기법을 도입하면서 표층구조에는 ‘만주국’의 이념에 영합된 듯 하나 내면구조에서는 그에 역행하면서 이주민의 생존환경에 집착하고 그들의 삶의 양상을 보여주려는 작가의 숨은 뜻은 노출하고 있다. 때문에 중편소설 “유맹”이 “만주국”의 국책에 순응한 친일적이란 평가는 무리가 있는 것이라고 결론하였다.

장춘식씨도 “현경준의 이민소설 연구”에서 현경준의 “유맹”과 “마음의 금선”을 다소 친일적이긴 하지만 비민족적인 작품으로 보는 것은 동의하지 않으며 “정부협력적인 측면과 현실비판적인 측면”을 나누어 보면서 작가의식성향의 동요와 이념적 파멸이라는 두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보다싶이 이 작품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이 세 작품이 국책에 봉으라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단편? 장편? 중편으로 탈바꿈한 이 작품의 장편 “돌아오는 인생”에 그러한 색채가 보다 농후하다.

총적으로 이 작품들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요청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1. 재만조선인문학에서 친일과 친일성향의 특징

재만조선인문학에서 친일과 친일성향은 한국문학에서 친일과 친일성향보다 명확히 구별되는 몇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재만조선인문학에서 친일과 친일성향의 작품들은 한국에서처럼 엄격한 조직의 규제하에서 제작된 것이 아니라 또 내용상에서 한국의 친일문학작품들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주지하다싶이 일제는 식민통치의 전반에 걸쳐 소위 “內鮮一體” 를 강조하면서 민족문화와 민족혼의 말살을 꾸준히 추진해왔으며 30년대 말 4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황도사상”의 기치아래 더욱 강력하게 문화탄압과 민족탄압을 전개하였다. 이에 많은 지식인들이 친일분자로 전락된 것은 물론이고 특히 일제의 중국침략전쟁의 진척이 되자 일제에 협조한 사람들이 많았으며 드디어 1939년 10월 29일에는 조선문인협회를 주동적으로 조직하고 “이 시국의 중대성을 認識하는 동지가 상합하여 朝鮮文人協會를 결성하고 興亞의 대업을 완성케 할 皇國적 新文化창조를 위하여 勇往邁進할 것을 선언” 하였다.

이 문인협회는 1943년에 “조선문인보국회”로 개칭하여 군국주의의 예속기관으로 되고 전쟁에 협력하는 문인들의 결합으로 되었으며 “朝鮮에 있어서 文學者의 總力을 大東亞戰爭의 목적에 集合시켜 皇道世界觀을 顯現할 日本文學을 수립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文人協會의 작가들이 주동이 되어 일제의 충성을 바친 것은 “國民文學” 잡지에 역역히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일제의 중국의 동북에 대한 통치는 이른바 “滿洲國”을 통한 간접적인 통치였으며 滿洲국의 건국이념으로 내세운 구호 또한 “내선일체”와 같이 공개적인 친일구호가 아니라 “오족협화”와 같은 간접적인 친일구호였다.

1940년 4월 5일부터 9일까지 14기에 걸쳐 이광수는 “만선일보”에 “내선일체와 조선문학”이라는 글을 발표하여 노골적으로 “무엇보다도 조선민중이 일본국민이 되어 결심하고 현재 그 실을 착착 보이고 있는 것은 실로 비약중의 대비약이라 할 것이다.”, “民族主義는 그 인식도 同調의 範圍를 二千萬에 확대하고 그 향토애를 朝鮮半島에서 日本帝國全體에 넓혀지 안하면 안된다.”, “日本精神에 의하여서만 첫째 東亞가 救出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세계까지 救出할 수 있다는 信念을 가질 수 있어야만 日本精神이라 할 것이다. ... 이러한 정신을 기초로 한 문학을 만들어내려는 것이 朝鮮文人協會가 理念으로 하는 日本精神에 기초한 國民文學建設인 것이다.” 라고 선양하였지만 그것은 이씨의 기대였을 뿐 당시 재만조선인문학의 구체상황은 아직 일제의 침략에 직접 봉사할 수 있는 “朝鮮文人協會”와 같은 친일문학단체나 “國民文學”과 같은 친일문학잡지의 출판은 아직 시기상조였던 것이다.

1940년 3월 21일 新京에서 열린 “內鮮文化座談會”에서도 “문화를 통한 民族協和의 實을 擧하자”는 구호를 내걸고 많은 문제에 대하여 운운하였는데 재만조선에게는 아직 文壇은 문학잡지를 가리키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滿洲국 기관지 중의 하나인 “만선일보”의 문예란이 문학전문 잡지가 노는 구실을 하게 되었다. 사실상에서 많은 친일작품들과 친일성향의 소설, 시, 수필, 실화들이 “만선일보” 문예란을 통하여 나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만선일보” 문예란은 결코

친일문학원지만은 아니었다. 특히 “검열이 국내에 비할 수 없을 이 만큼 소홀했으므로” 친일문학, 혹은 친일성향의 문학 외에도 다양한 사상내용의 작품들이 상대적으로 펴 자유롭게 발표되었다.

아무튼 재만조선인 친일문학은 한국에서처럼 엄격한 조직과 통제 속에서 전개된 것은 아니다.

둘째, 재만조선인문학에서 친일, 친일성향이 있는 작품들은 왕왕 그 텍스트의 이중성을 나타내고 있다.

연극 “김동한”, 소설 “밀림의 여인”, 시 “낙토만주”, “대동대가” 민요 “滿洲아리랑”, 수필 “새 국민적자각” 등 노골적으로 일본정신을 찬양하고 친일분자를 칭송하고 만주국의 국책을 찬양한 작품들에 대하여서는 이중성을 운운할 나위가 있을 수 없다. 문제는 필자가 이 논고에서 친일성향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작품들인데 이 부류의 작품들에 대하여서도 이미 많은 교수들이 의논한 바 있다.

예를 들면 많은 학자들이 안수길의 창작집 “복원” 과 장편소설 “북향보” 를 논하는 글들에서 그 작품들은 당시 “滿洲국” 의 국책에 부응하는 일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또 다른 일면에 “재만조선인 개척의 문학적 가치” 를 평가하고 있다.

최근 김윤식 교수는 “안수길문학의 구만주체험” 을 논하는 글에서 “새마을” 을 통하여 “개척농민의 세계에서 도시적 세계로의 이행” 을 보았다고 하면서 “이 도시개척민의 세계에서 창북소년의 운명개척의 가능성으로 떠오르는 것이 ‘새마을’ 의 참주제이다” 라고 결론 내렸고 “목축기” 는 滿洲건국 이후의 “개척민사의 시발점을 보여준 것이었다. 陰慘味에 빠지지 않고 어디까지나 의지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개척민의 삶의 형상화를 통해 당대의 ‘한가지 담론계’ 에 깊이 관련되고 있었다.” 라고 평가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목축기” 의 찬호, 로우승, “새마을” 의 고영감, 창북 “북향보” 의 정학도, 오찬구 “돌아오는 인생” 의 보도소장, 명우 등은 확실히 복잡한 이중성격의 소유자들이다. 그들이 성격의 일면에는 확실히 재만조선인의 주체를 이루고 있는 농민들의 꿈과 생명저력이 체현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사회 어느 시대에도 인간의 최소한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데 필요불가결의 조건 즉 생명과 생존권의 요건이 곧 인간 누구에게나 가장 주요한 것이며 ... 민중에게 항상 중요한 것은 민족적 주체성이나 독립, 사회정의나 자유, 평등, 박애 같은 숭고한 이념으로서의 객체가 아니라 자신과 이웃이 온화롭게 살아가는 생활조건이었다. ... 나라를 빼앗기는 것 서러운 것이 아니라 고향을 떠나야 하는 것이 더 슬펐으며 왕이 죽는 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자기 애인이나 자식이 죽는 것이 더 통분스러웠던 소박한 민중적 정서를 수궁하지 않고는 한의 문학의 진수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임헌영의 이 결론은 우리가 “새마을” 등 작품들의 2중성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열쇠를 제공해주고 있다.

김윤식교수는 안수길의 “복간도” 를 논하면서 재만조선인의 “박쥐적 성격” 을 다음과 같이 개괄하였다. “조선족은 중국인파도 싸워야 했지만 동시에 일본인파도 싸워야 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일본인파도 타협해야 했지만 중국인파도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이중적 성격이야말로 조선인의 운명적 성격이었다. 교활무쌍한 몸짓 박쥐적 성격만이 생존을 위한 가장 분명한 법칙이었다.”

우리가 정학도, 찬구, 찬호, 보도소장 등 인물형상을 잘 분석하여 보면 이 작품들의 2중성을 보아낼 수 있다.

셋째, 재만조선인문학에서 친일과 친일성향이 작품들은 보다 반일무장투쟁과 더 긴밀히 연계되어있었다.

주지하다싶이 지정학적인 특점과 여러가지 국제여건에 의하여 동북지역은 직접적인 반일무장투쟁의 전장으로 되었었다. 홍범도, 김좌진이 인솔하는 독립군으로부터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혁명군과 항일연군 그리고 김일성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반일무장투쟁은 모두 동북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므로 여기 친일문학은 한국의 친일문학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반일투쟁과 밀착된 특징을 갖고 있다.

연극 “김동한”, 소설 “밀림의 여인”, “초원” 등을 분석해보면 여러분들은 이 점을 수궁하게 될 것이다.